소망의 언덕

최 정 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즐거운 교환"

양림교회 손영호 원로목사님이 쓴 "악수 안하믄 손이 아픈께"라는 수필집이 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친구의 강력한 권유로 한 여인이 교회에 왔다. 어느 날 시골에서 시어머님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 "아범아 네 처가 교회를 나가는 것 같더라. 네 어머니 다닙니다. 예가 뭐야, 알고 있으면서 그냥 두었단 말이야. 예 어머니. 안된다. 교회만은 안 된다. 우리가 조상을 버리고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네 처를 못 나가게 하라. 어머니, 교회 가는 것만은 허락합시다. 무슨 소리하는 거야. 어머니 내 처가요 교회를 가더니 '그 지랄 같은 성질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뭔가 있나봐요. 요 사이는 제가 편합니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개석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말했다. "아내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너무 큰 감명을 주었고, 성경을 읽는 아내의 모습을 보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믿을 수 있는 장교들이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믿는 사람들의 행함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럽의 교회들, 특히 독일의 교회들이 항의하고 항변하고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니체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니체가 증거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아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다.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니체는 "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많은 실망을 본 것 같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90%는 가짜다"라고 하였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는 당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 '집 거위들'과 같다고 비유했다. 거위들은 매 주일마다,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아주 아주 열심히 듣는다. 설교자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는 집 거위가 아닙니다. 답답하게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인 숫 거위는 교인들에게 더욱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은,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고, 저 공중의 새와 같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 더 축복받은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거위들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꽥꽥거리는 소리였겠지만, 요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신이 나서, "아멘, 아멘, 꽥꽥…"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후에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시 일렬로 줄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우화입니다. 말은 잘 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모욕을 받거나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말도 잘해야 하고 말씀을 삶으로 그려내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하겠다고 달려 들어서도 안 되는 구별된 몇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만다. 목회하면서 실제로 겪은 일이다. 전도 나갔던 전도대원이 돌아와서는 "목사님. 저 전도 못합니다. 안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제가 전도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당신 남편이나 교회 데려다 놓고 전도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 전도도 못하는 제가 무슨 남을 전도하겠다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교회를 잘 나오던 여자 집사님 "목사님 잠시 교회를 쉬겠습니다." 왜?? 남편이 그랬데요.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집어치워. 우리 집 개가 믿어도 너 보다 잘 믿겠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말 잘함과 행함과 진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전도는 말로 그리고 삶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인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날에 3천 명이 새로 믿기로 작정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 잘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것은 말 잘하고 열심히 전도한 것을 넘어 주께서 전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한 평생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 처형을 받은 강도를 보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3)라고 답하셨다. 만약 이 구원의 사건이 요즘 세상에 알려졌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나는 저런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저런 예수를 전하는 교회는 다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강도가 나였다면, 내 자식이었더라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강도가 나이고 우리 자식이고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놀라운 은혜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한다.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이다. 이처럼 은혜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즐거운 교환'의 결과인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겸손을 배우는 봄의 계절

이 한 규 목사
들꽃사랑교회 담임
시인

4월이 되자 꽃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피어났다. 매화, 개나리, 벚꽃 등 땅속에서 대기한 꽃들이 계속 피어나고 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 자연의 시계는 엄중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창세기 1:14)" 말씀대로 되어간다. 그래서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면 큰 재앙이 된다. 하물며 이러한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랴? 자연 앞에서도 겸손하여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더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다가는 화를 자초한다. 이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항을 떠나 신세계로 향했으며, 아메리카에 '플리머스' 식민지를 세웠다.

당시 이 배의 승객은 102명, 승무원은 25~30명이었다. 약 66일간의 힘든 항해 후 코드 곶 프로빈스타운 항구에 닻을 내렸다. 이 '플리머스'는 산업 혁명기에 상업 선적 항구로 성장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산물을 수입하고 광물을 수출했으며, 승객을 운송했다. 그런데 항구 옆의 디본(Devon)시에서 불과 14.5km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는 악명 높은 큰 암초(바위) 덩어리가 있어 배가 부딪혀 여기에 숨을 잃는 선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바위는 당시 선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애물이자 재앙 그 자체였다. 이 바위에 부딪혀 수백 척의 배가 침몰되었고 수천 명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고까지 한다. 그래서 항해 사고를 막으려고 등대를 세우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다가 1696년 헨리 윈스탠리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디스턴 등대'를 건축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등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렬한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 자신이 그 등대 안에 들어가 있겠노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다. "내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 때 나의 등대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1703년 12월 7일, 영국은 역사상 최악의 겨울 폭풍을 맞게 된다. 런던과 브리스톨까지 강타한 이 폭풍은 지붕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해안가의 가축들을 익사시키고 400개 이상의 풍차를 박살냈다. 엄청난 폭우를 피해 윈스탠리는 자신이 그 등대 안으로 피했다.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자신이 건축한 등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들어갔다. 그런데 폭풍 다음날 등대의 불빛은 더 이상 깜박이지 않았다. 등대에서 평소에 보이던 불빛이 안 보이자 당국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윈스탠리는 두번 다시 볼 수 없었다. 인간의 힘을 믿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교만한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적이다.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교만은 단순히 겸손의 반대말이 아니다. 파멸로 이끄는 마차고 낭떠러지로 인도한다.

4월 4일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다. 하늘의 심판은 '파면',그렇게 나타났다. 그것은 하늘의 섭리였다.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인해 국론도 분열되었고 교회도 분열되었다. 서로 마주보고 달려드는 기차 같았다. 거대한 집단들은 험자랑하고 거대한 소리 경연장을 방불한 정도로 소란했다. 나라 안팎의 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거리로 나와 온 국력을 소모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안겨주었지만 우리는 안방 싸움에 골몰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 곧 교만한 사람은 심판하신다. 봄의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들도 열흘 못간다. 금방 시든다. 질때보면 너무 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젊음도 한때다. 금방 늙는다. 금방 추해진다. 지금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봄이 가져오는 선물은 겸손한 마음이다. 영원할 것 같지 않은 꽃들이 질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긍휼을 입기 위해서 말이다.「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언 18:12)」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마도 돈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매출이 중요하고 수익의 극대화가 최고의 평가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돈의 가치와 힘이 큰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마6:24). 세상의 중심은 돈이 아니다. 예수님이 돈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삶의 필요, 즉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이것은 어떤 삶일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보라.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다.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표현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상황이 우리를 엉뚱한 데로 몰아갈 때가 있어도 상황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 일하는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저를 인도해주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농어촌 · 미자립교회 · 군부대에
미션21 신문을 보냅시다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4년 7월 창간 25주년을 맞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1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i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2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 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후원(구독)해 주시는 분들

80부 : 리종빈목사(광주벧엘)
20부 : 김승원목사(산창교회) 강봉규이사장(나사렛요양병원) 김사라목사(푸른솔) 김요한목사(월광) 김용민목사(아시아침례) 김영팔목사(입면교회) 남택률목사(유일) 리종기목사(빛과사랑) 문희성목사(한빛성결) 박혜영목사(동서남북) 백병철목사(봉황임마누엘) 백재옥목사(비손수양관) 신은수목사(열린교회) 윤성록목사(문흥제일) 이천영목사(새날학교) 이근배목사(빛과소금) 임종갑목사(새순교회) 임준태목사(하남) 조규성목사(서광주교회) 최정원목사(광주소망) 한상영목사(창대)
10부 : 김임복목사(순복음무등) 변의석목사(엘림침례) 박해성목사(거성) 이원제목사(사랑의빛) 정순희 최보안목사(백향목)
6부 : 김대훈목사(매월교회) 김경배목사(성암교회)
4부 : 고석원목사(엘드림) 김문선목사(도산) 나보람(여수산돌) 박상헌장로(광주벧엘) 박찬환장로(예장통합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오대환목사(동심재) 예장(통합)광주노회
2부 : 공성택목사(성봉) 곽혜자(제일중앙)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노회(예장통합) 김선화 김순앙 김양남 김영길집사(신안) 김오자장로(모자이크벧엘) 김진권사(광주벧엘) 김율호목사(홍양) 김종운집사(그린텍 대표) 나성현목사(빛고을소망)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광주연수원 박수한집사(광주벧엘) 박연민집사(광주벧엘) 박용수집사(광주벧엘) 배복남집사(광주벧엘) 서정형전도사(기독문화선교회) 서송자 신행원집사(광산) 오경복권사(동명) 윤석민집사(광주벧엘) 윤정란권사(광주벧엘) 이경아 이석후목사(하늘양식) 이연옥집사(산림교회) 이해정집사(광주벧엘) 임영혜 문정수장로(광주벧엘) 장신장로(광주벧엘) 정종안원장(참조은한방병원) 조순옥(행복한) 조점님사모(광산) 차은효

1부 : 강영숙(새광야) 강정수집사(광산) 강정숙집사(광산) 고정근집사(광산) 공중길집사(광산) 국성섭목사(광주에덴) 기명현목사(예수생명) 김경호(서남) 김경화집사(광산) 김동수(양림) 김명숙집사(광산) 김명재집사(광산) 김문현집사(광산) 김복자 김상필집사(광산) 김상진목사(한재) 김석호집사(광산) 김선 김선남 김성환집사(광산) 김순자 김연근 김연희권사(벧엘) 김영희권사(푸른초장) 김은성 김은희집사(광산) 김이겸 김정남집사(광산) 김지은(작가회) 김창수(장성제일) 김태봉목사(나사렛예수) 김형미목사(작가회) 김홍섭집사(광산) 김효정목사(진주) 노정옥집사(광산) 노청자집사(광산) 문남례집사(광산) 문연심집사(광산) 문유경 박금자(한빛성결) 박금상집사(광산) 박미선집사 박양선전도사 박영성목사(생명샘) 박영희 박은경 박재수집사(동성) 박천호목사(다니엘기도원) 박춘애 배정자집사(광산) 서숙자집사(광산) 서운근목사(화순도림중앙) 손보경집사(광산) 송인자 신은수목사(열린) 안영균안집(새순) 안혜자집사(광산) 양봉규(광주평안) 양희언목사(예심) 양애라집사(광산) 양은숙 양태규(생명나무) 오광열집사(빛과소금) 오교석(빛과소금) 오주현(꿈이있는) 유명래집사(광산) 윤경희집사(광산) 윤등자 윤영옥목사(예닮) 윤진순집사(광산) 윤홍장집사(광산) 광주YWCA 이건순 이남심(장흥대덕읍) 이빛나 이선자집사(광산) 이시내(행복이넘치는) 이승훈목사(포도원) 이영미집사(광산) 이은경집사(광산) 이을용집사(서광) 이호길목사(정성) 이인환 이재훈목사 이정란(장성제일) 이종석목사(새예루살렘) 이진수집사(광산) 이충렬집사(광산) 이태영집사(광산) 임미숙집사(운암) 임성진집사(광산) 임소영집사(광산) 임정현(동광양제일) 임종연집사(아름다운) 임종훈(사랑마을) 장정심집사(새벌) 전영화목사 정근모장로(효성) 정미경 정병용목사 정수미 정애정집사(광산) 정영애목사(주은혜) 정종운집사(광산) 정준희집사(빛과소금) 정진복(장성제일) 정진산집사(광산) 정찬영집사(광산) 정청기집사(광산) 정춘기집사(광산) 정춘희집사(광산) 정향림목사(첨단빛사랑) 조윤목사(새벌) 조원선전도사(능주중앙) 최미숙전도사(포도원) 최승곤집사(빛과소금) 최춘영집사(광산) 최혜정집사(지구촌복된) 최현순집사(광주벧엘) 한충희(양무리) 황은아집사(광산) 황정아집사(광산) 상하리교회 예장광주전남협의회 예장합동호남협의회 (사)광주기독교 유적지기념회 국기조찬기도회 광주지회 호남 · 제주침례교연합회 통합 · 전국장로회연합회 서부지역협의회

※성명 가나다순